

Awana Family

헤브론 교회 최원호 선생님

헤브론교회 어와나 클럽은 2007년 3월 볼티 클럽원 9명, T&T 클럽원 16명 교사 7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주일 오후 시간에는 어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은 교회 주변에서 흩어져 각각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유초등부 학부모가 많이 있는 청장년회에서 아이 들과 함께할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였으나 교인 들이 그리 많지 않은 교회에서 오후에 봉사할 인원도 부족한 터라 꾸준히 이어져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어와나 (Awana)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

오후에 놀고 싶은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는 아이들의 불평이 있었으나 몇 달이 지나가면서 다른 교회 탐방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말씀 암송에 다시 거부감을 나타내었으나 교사들이 먼저 핀을 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에 주중에 암송 핀 위주의 말씀 암송을 한 결과 아이들도 힘을 얻어 점차 암송 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교사들이 먼저 훈련된 모습이 없이는 아이들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게임즈에 참석을 하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에게도 그 동안의 훈련됨에 대하여 좀 더 큰 모임에서 세워주고 세움 받는 것의 뿌듯함과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에는 여름캠프에 참석하여 미국 현지 교사 및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또 다른 형태의 어와나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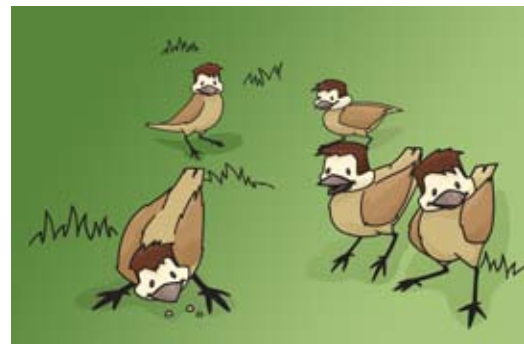
기존에는 예배와 어와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으나 올 해부터는 오전에는 예배를

오후에는 어와나 시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 때문에 클럽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줄어 들었지만 점심 시간에 아이들과 교사들이 외부로 나가 전도 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어와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4년째 접어든 시기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들간의 협력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차 하나의 틀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새로운 각오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어와나 본부의 도움을 받아 어와나 비전캠프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이종환 선교사님으로부터 교사교육을 받고 입단식을 가졌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를 기억하며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매주 기도모임을 갖고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덧 아이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대하는 것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뜨거워 지고, 올 여름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떨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헤브론 어와나 클럽의 여름 비전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Take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It was March 2007 that the Awana Club in Hebron church is stated with 9 Sparkies, 16 T&T and 7 leaders. We seriously discussed about Sunday afternoon. Adult are taking part in afternoon worship, so we need a program for kids and youth. We designed several programs but those were not succeeded.

Then youth pastor of our church were heard Awana. We got allowance form elder meeting, we opened Awana.

At the first time, children complained because they loose their playing time. But a few month later they took part in Awana. Next year children complained about verse memorizing, leaders took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therby leader memorize the bible verse first. And then children encouraged about that.

We learned that we have to show first to children.

Last year(2009) we took part in Awanagames for the first time. We have great time in Games. Children feel that they have to be trained and they were proud about that. And we participated in Awana english camp, children and leaders had have



time with American leaders and students.

We had combined Awana program and Sunday worship. But we separate that this year. Actually that Awana clubbers are slightly reduced this year, because some of student go back to home after the worship. Instead of that we use lunch time for evangelism with leaders and clubbers.

This is forth year of Awana in our church, we still feel inadequate ourselves, we need more strong unity between leaders and love to children.

We do not want machinelike work but want active with God's will.

We make a fresh resolution we will design the summer bible camp in english with Awana Korea HQ and YMI.

I remember the time when Charlie Lee trained church leaders at basic training time and first Awana opening Ceremony. That was so exciting and palpitating time to me.

I remind that feeling always, and I start every week newly. I pray God about unity of leaders, presence of God and growing of children. I expect the God's work on this summer english bible camp.

How great God will be. I'll pray and praise until the second advent of Christ.

Please pray for our english camp.